

〈愁城誌〉의 構成的 特徵과 作家意識

文 範 斗*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立志와 挫折을 통한 悲觀的 世界觀 |
| 2. 〈愁城誌〉의 갈래적 性格과 意味 | 5. 自高精神과 代案의 摸索 |
| 3. 現實에 대한 哲理的 問題意識 | 6. 맺음말 |

1. 머리말

17세기를 전후한 시기는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가 그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던 때였다. 특히 世祖의 왕위찬탈로 야기되었던 사대부 사회의 분열상은, 거듭된 사회와 당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기득권층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의식에서 비롯되어 이념적인 입장까지 달리하고자 하는 문인부류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정치질서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면서 나름의 처세론을 세우고 새로운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다. 최근 논자들은 이들을 개념화하여 方外人이라 하고, 또 이들의 세계관적 모색이 반영된 문학을 方外人文學이라 하여 일정한 문학적 功能을 인정하고 있다.¹⁾

* 영남대학교 강사

1) 林奘澤, 朝鮮前期 文人類型과 方外人文學,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産業社, 1982; 황위주, 방외인문학의 개념과 성격, 《국어교육연구》18, 경북대학교, 1986; 尹柱弼, 朝鮮前期 方外人文學에 관한 當代人的 認識 研究, 韓國精神文化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參照

白湖 林梯(1549~1589)는 방외인으로 인정되는 당대의 문사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 하겠다. 호탕활달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뛰어난 才性으로 文武를 겸비했으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거기에 고뇌하고 좌절했던 그가 살아온 삶의 자취들은 그 평가가 무색치 않음을 보여준다. 그의 그러한 삶의 태도는 그가 현실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역설적 증거라 하겠다. 그의 문학은 그러한 자기 삶에 대한 존재적 고뇌의 자취로서 여러 논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愁城誌〉는 백호의 문집에 실려 전하는 것으로 일찌기 許筠이 ‘結繩以來 別一文字’²⁾라 할만큼 그 독특한 구성과 기발한 착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특별히 본 작품이 근래 와서 연구자의 관심을 끈 것은, 여기에 작가의 현실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에 연유한다고 본다.³⁾ 그러나 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그 까닭은 작품의 특정 단락의 분위기에 대한 선입견이 앞서다 보니 작품 전체에 반영된 다양한 문제들을 소홀히 취급했기 때문인 것 같다. 또는 작품의 논리적 구성관계에만 치중함으로써 실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부수적인 수식으로 치부되어버린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⁴⁾

2) 許筠, 《鶴山樵談》, ‘其文不多見 所謂愁城志者 結繩以來 別一文字 天地間 自欠此文字 不得’

3) 여기에 관련된 본격적인 논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林榮澤, 朝鮮前期 漢文學, 《韓國史》11, 國史編纂委員會, 1978

金光淳, 《天君小說研究》, 螢雪出版社, 1980

金惠淑, 愁城志 小考, 《白影 鄭炳昱先生 選甲紀念論叢》, 신구문화사, 1983

權純育, 方外人文學의 研究2—愁城誌에 나타난 白湖의 認識世界—, 《成大文學》22, 成均館大學校, 1983

鄭學城, 林白湖文學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5

李東根, 愁城志, 《韓國古典小說作品論》, 集文堂, 1990

尹柱弼, 愁城誌의 3단구성과 그 의미, 《韓國漢文學研究》第13輯, 韓國漢文學研究會, 1990

4) 기왕의 논의가 지니는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작품의 단락을 전래의 문학갈래와 대응시켜 작가의식을 추론해 나간 尹柱弼教授의 논고는 따라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겠다.

尹柱弼, 愁城誌의 3단구성과 그 의미, 《韓國漢文學研究》第13輯, 韓國漢文學研究會, 1990

필자는 본 작품이 작가의 현실을 보는 시각을 포함해서 자기 삶에 대한 문제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논의의 방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그의 삶과 연관시켜 여러 각도에서 해명해야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작품의 논리적인 인과관계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각각의 단락에서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작가정신의 진상을 철저히 해명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2. 〈愁城誌〉의 갈래적 性格과 意味

〈수성지〉는 갈래상 心性假傳에 속한다. 마음의 주체를 의인화하여 天君이라고 하고, 기타 사람의 본성과 생태적 속성을 인격화한 등장인물들로 전체의 구성을 이끌어 가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天君傳〉을 비롯한 대부분의 심성가전에서는 이러한 인물들이 중세 봉건군주제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그 가운데서 벌이는 정치적 행위가 비유의 표면구조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비유의 표면에 전개되는 서사적 장치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에서 마련된 心性論의 사유체계를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수성지〉는 첫 단락부터 성리학적 심성론의 문학수사학적 변용이라는 기본설정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寓意의 의미체계가 성리학적 인간관에 입각한 인간의 보편적인 心統性情의 문제를 다룬 것 같지 않고, 인물들도 전통적인 심성가전의 인물들 외에, 事物假傳에서 볼 수 있는 의인화된 인물과 실제 역사상의 인물들까지 두루 포함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⁵⁾

이런 내용상, 형식상의 파격이 〈수성지〉의 해석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 작품이 심성가전의 갈래적 특징을 준

5) 물론 〈天君演義〉나 〈南靈傳〉 등에서도 사물의 의인화된 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나 〈수성지〉의 魏襄將軍처럼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격화되지는 않고 있다.

용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전제한다면 복잡하게 보이던 작품의 성격이 의외로 용이하게 해명될 수 있다. 심성가전의 등장인물들이 인간의 생래적 속성이나 심성이 의인화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수성지〉의 구성도 그렇게 단순화시켜 보자는 것이다. 즉 사물가전적 성격의 등장인물이나 역사상의 인물들도 결국은 작품 중에 구체화된 한 인간의 여러 인격적, 생래적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작중의 인물들이 작품의 구성을 통하여 빚어내는 인간상은 보편적인 성격의 인간인가, 아니면 어떤 개성적인 성격의 인물인가. 심성가전의 인물들은 대개 보편적인 인간본성을 성리학적 관점에서 성격화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개별적인 인간상이기 보다는 보편적인 인격을 반영한다. 그러나 〈수성지〉는 그런 것같지 않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우선 작품의 주인공인 天君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

천군은 물론 비유의 표면에서는 봉건적 지배체제 속의 군주이지만은 그 원관념은 사람의 마음이다. 천군이라는 용어는《荀子》〈天論篇〉의 ‘마음이 中虛에 거하여 五官을 다스리는 고로 천군이라 한다’⁶⁾고 한 데서 처음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천군전〉을 비롯해서 조선조 심성가전에서의 천군의 개념적 범주는 이를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다.

〈수성지〉의 천군은 ‘마음의 주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작품과 차이가 없으나, 실제로 그 성격은 인간의 보편적인 성격으로 정의되고 있지 않다. 前世의 英雄才士를 慨想하여 문필로 발설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향유 지니는 속성이 아니다. 또 천군은 특별히 외부적 상황과 관계를 맺을 때 그 본성의 발현에 있어서 어느 측면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仁, 禮를 유보하고 義, 智에 특별히 경도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은 천군의 주체적인 세계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6) 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謂天君

인간의 感官은 七情에 대해 두루 작용하는 것이지만은 천군은 특히 哀에 일관하고, 특별한 역사적 현실에 편애를 보이는 것 역시 천군의 개성적 인격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 천군을 어떤 개성적 인격의 심적 주체로 이해한다면 이는 백호 자신을 나타내는 것 외는 달리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인간의 여러 속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차용되었고, 또 그 인물들의 추상적인 결합체인 인간이 개별적이고 개성적인 성격으로 형상화되어 결국은 백호 자신의 정신세계를 투사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본 작품의 이해는 새로운 차원에 이르게 된다. 즉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백호의 내면세계의 수사적 인격화라는 것이다. 한 인간이 세계 속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복잡다단한 삶의 곡절을 지니고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도 다양한만큼 그것을 한 인물의 성격으로 표현해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작가는 등장인물이 지니는 다양한 상징적이고 우의적인 속성에 기대어 그의 내면세계를 여러 모양으로 비추어 보려고 했다는 이야기다.

본 작품은 논의의 목적상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단락은 천군의 즉위 후 안정된 마음의 나라가 혼란을 겪다가 주인옹의 간언으로 改元할 때까지, 둘째 단락은 復初 元年 秋八月 哀公과 採聽官 監察官이 疏를 올릴 때부터 愁城 구축후 管城子에 의해 그 정경이 기술되는 부분까지, 셋째 단락은 魏襄將軍의 招致로 수성을 함락시킬 때까지, 그리고 넷째 단락은 수성 회복후의 평정의 상태가 이어지는 마지막 절말까지이다. 여기서 마음의 주체인 천군이 서사의 중심에 등장하는 경우는 첫 단락과 넷째 단락에서이다. 둘째 단락에서는 관성자가 셋째 단락에서는 국양이 서사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서사의 주체가 단락

7) 따라서 천군이 인간의 보편적 마음을 의미한다고 한 일부 견해는 천군의 이러한 속성을 도의 시한 결과라 하겠다. (李東根, 위의 책, p. 60)

에 따라 변하는 것은 각 서사주체에 기대는 문제의식의 성격이 달랐음을 말한다. 따라서 각 단락은 전체의 의미맥락과 구성상의 연관성을 지니면서 개별적인 의미영역을 지니게 된다. 말하자면 서사주체에 따라 작가의식의 독자성이 구현되고 있다는 뜻이다. 본 작품을 의미체계로 보면 단락 상호간에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도, 또 의미체계 자체로는 별반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서사주체가 아닌 단락 내의 부수적 인물이라도 작가의 성격을 어느 다른 각도에서 일정한 의미범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작품 자체의 우의적 구조가 지니는 의미체계와는 별도로 각각의 단락에 반영된 백호의 문제의식을 따로 떼내 논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 작품의 창작 동기에 대해서 澤堂 李植은 ‘북평사에서 서평사로 바뀔 때 일부러 어사의 전도를 범해서 탄핵을 받았다. 이후 수성지를 지었으니 여기에 스스로 평생의 奇偉事를 드러낸 것이 아주 많았다’고 하였다.⁸⁾ 그가 〈수성지〉를 통하여 일생 겪었던 삶의 궤적을 두루 반영해 보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태당의 이 글이 잘 지적해 주고 있다. 그 실상을 이후 논의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8) ‘自北評 換西評 故犯御史前道 見劾 著愁城志 以自見平生奇偉事 甚多’(李植, 《澤堂續集》卷1... 이 글에 대해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金起東教授는 ‘북평사에서 서평사로 옮길 적에 일부러 범필하고, 조정에 대한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펴볼 수 없는 현실을 저주하는 자기의 울적한 심정을 우원한 비유로 표현한 것’(金起東, 《韓國古典小說研究》, 教學社, 1981, p. 138)이라고 해석했는데, 대부분의 논자가 여기에 따랐다. 그러나 李東根教授는 위의 원문을 ‘북평사에서 서평사로 좌천되자(애당초 자신의 생리에 맞지 않는 벼슬길에 나선 자신을 탓하면서) 일부러 어사의 전도를 범필하고 탄핵을 당하여 벼슬을 그만 두었다. 그 후 〈수성지〉를 지었고, 또한 그는 평생 동안 기위사를 보인 것이 많았다’라고 해석하였다. (李東根, 위의 책, p. 51) 그래서 이 글에서는 〈수성지〉의 창작 동기가 될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어사의 전도를 범필한 것과 〈수성지〉를 지었다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는 존재치 않는다는 李教授는 견해는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著愁城志’와 ‘以自見平生奇偉事’ 사이에는 분명히 의미상의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즉 〈수성지〉를 지어 ‘그로써’ 평생 奇偉事를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수성지〉의 창작은 어사의 전도를 범필한 단순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겪어온 多難한 삶의 궤적을 실어보려는 의도에서 지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3. 現實에 대한 哲理的 問題意識

본 작품의 첫 단락은 心性假傳의 원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천군전〉 등 심성가전의 구조는 대개 천군을 중심으로 충신형 인물과 간신형 인물이 서로 대립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안정을 유지하던 천군의 나라가 간신형 인물들의 농간 등으로 혼란을 겪게 되나 나중에 충신형 인물들의 주도로 혼란이 수습되게 된다는 내용이 일반적이다. 〈수성지〉의 첫 단락도 太平—混亂—安定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심성가전 계열의 작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의 혼란은 천군의 통치행위, 즉 심적 주체의 의지적 향방에 관련된 문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天君傳〉의 懈와 傲와 같은 부정적인 심성의 유희도, 華督과 柳陌과 같은 악인형 인물의 도발과 같은 설정도 없이 천군 스스로의 주관적 행위에 대해 주인공이라는 역시 의인화된 인물에 의해 정의되는 혼란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천군의 행위가 지양되고 극복되어야 할 혼돈의 상황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그 주관적 행위가 여타의 심성가전에서처럼 심성을 해하는 가치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천군의 개성적인 한 측면을 드러낸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첫 단락의 서두부에는 降衷이라는 年號로 구획지어진 환경이 제시된다. 궁극적으로 조화와 질서가 갖추어진 인간심성을 뜻한다. 仁義禮智가 단서를 채우고, 喜怒哀樂이 中庸으로 총괄되었으며, 視聽言動이 禮에 통괄되어 四勿으로써 제어되고 있는 상태이다.¹⁰⁾ 이는 작품에서 주인공이라는 인물로 인격화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인공에 의해서 제시되는 中和의 경지이다.

9) 尹柱弼, 위의 책, p.p. 59-60

10) 曰仁曰義曰禮曰智 各充其端 率職惟勳 曰喜曰怒曰哀曰樂 威統於中 發皆中節 曰視曰聽曰言曰動 俱統於禮 制以四勿

그러하오나, 이것도 참으로는 없어서는 안될 것이며, 한 쪽으로 치우쳐서도 안될 것입니다. 비유컨대 一陰·一陽과 바람과 비가 천지의 기운 아님이 없으니, 차례를 어기면 變이 되고, 시절을 놓치면 災殃으로 되나니, 陽이 펴지고, 陰이 위축되고, 바람이 고르고 비가 순해지는 것은 바로 이 攝理의 如何에 달려 있습니다. 원컨대 君上께서는 三才에 참여하는 큰 자리를 생각하시고, 만물이 나에게 구비되었음을 생각하시어 中和를 이루어 천지의 조화에 참여하신다면 그것이 좋지 않겠으며, 또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書經에 이르기를, 偏僻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면, 王道가 평평해진 다 하니, 원컨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황폐하지 않는다면 더할 수 없는 多幸이겠습니다.

(然此固不可無 而所不可偏者也 譬若一陰一陽 曰風 曰雨 無非天地之氣 乖序則爲變 失時則爲災 可使陽舒陰慘 風調雨若 正在變理之如何耳 願君上念參三之大位 想萬物之備我 致中和而參天地 豈不大哉 豈不美哉 書曰 無偏無頗王道平平 願念茲在茲 無怠無荒 幸甚幸甚)¹¹⁾

그러면 이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주인옹에 의해서 혼돈의 상태로 규정되는 천군의 모습을 보자. 천군은 翰墨의 자리와 文學, 史學의 지역에 놀면서 밤낮으로 친근한 것은 陶泓과 毛穎등의 네 사람 뿐이라고 했다.¹²⁾

여기에 四端 中 羞惡가 일을 맡고 是非가 論을 주장하며, 밖으로는 監察官과 내왕해서 분수에 넘치게 강개하며 矯矯亢亢한다고 하였다.¹³⁾ 이는 천군 스스로 말한 바처럼, 論今弔古함으로써 뜻을 격발시키고 원대한 데로 내달려 정을 호탕히 발동시키는 모습이다.¹⁴⁾

이 단락 자체의 의미체계는 이미 관행화된 심성가전의 그것에 준용된

11) 본문의 번역은 金光享, 《愁城誌·天君本紀》, 螢雪出版社, 1979에 따랐음(이하 같음)

12) 且根本未固 而遽遊於翰墨之場 文史之域 日夜所親近者 陶泓毛穎輩四人而已

13) 蓋四端之中 羞惡用事 是非持論 外與監察官交通 越分慷慨 矯矯亢亢 甚非所以安靜之道也

14) 或有不中規矩 自以爲是 激志高遠 牽情浩蕩 將有尊俎之越 豈無佩鐙之刺乎

다. 즉, 혼돈의 상태는 극복되고 지양되어 처음의 안정상태인 중화에 이르는 구조가 그것이다. 그러나 작가가 특별히 본 단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다. 그보다는 천군의 개성적인 인격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인격화의 불가피성을 말하고자 한 데에 문제의 핵심이 존재한다. 그 불가피성은, 중화가 인간심성의 이상적 경지라 해도, 그것은 관념적으로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 개인의 수양과 노력을 통해서 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 제기된다.

중화의 경지는 주인옹이 말한 바처럼 存心, 養性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상적 상태는 외부세계와 별개로 존재하는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외부세계와 교섭을 가짐으로써 의미를 부여받는다.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의 통로는 採聽官, 監察官으로 의인화된 視·聽의 감관이며, 그 판단의 준거는 羞惡의 義와 是非의 智이다. 그렇다면 중화는, 시·청의 작용을 근거로 해서 의·지로 판단되는 역사적, 현실적 상황 역시 조화롭고 질서가 잡혀 있는 경우여야만이 도달가능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중화는 개인적인 수양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없고, 외부의 현실과 내부의 수양의지가 통일적으로 균형을 이룰 때 도달가능한 경지이다. 조화롭고 질서가 잡힌 외부세계를 王道政治가 완성된 세계라 한다면, 결국 중화로 표현되는 성리적 인간의 완성은 현실적으로 왕도정치가 완성된 시점과 일치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중화라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 속성으로 해서 천군의 행위는 가치론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세계관적 지향의 문제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왕도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중화의 경지란 화석화된 이상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에 대해 의식적인 관심을 갖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심적 주체의 선택의 문제이다. 이 때, 외부현실이 부정적이라면 羞惡와 是非의 발휘는 오히려 天理의 본성에 가까운 것이 된다. 만약, 시·청 등의 오관을 통제하고, 의·지의 판단작용을 억제한다면 중화는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본성적

발휘도 부정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상은 백호가 현실문제에 대하여 간단없는 관심을 나타내고 분노하고 좌절했던 자기 삶에 대한 철리적 해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사회가 부정적인 이상 그러한 그의 태도는 본성적 판단에 근거한 天理의 작용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仁·禮로 대표되는 관념적이고 예교중심적인 도학 자적 사변에 머물러 있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로 이해된다.

이상에서 보듯, 백호는 심성가전에서 이미 마련된 성리학적 심성문제를 빌어와 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작가가 굳이 심성가전의 양식적 체계를 빌어 현실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왜곡된 정치상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 단순히 기득권세력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 의식 때문이 아니라 성리학적 인간관에 토대를 둔 철리적인 고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 단락을 통해서 보여주려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 내용이 고차원적 사유체계가 아니라 초보적 단계의 심성론으로서 문학적인 수사로 채워져 있지만, 오히려 고도로 세련된 문장기교로 해서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다.

4. 立志와 挫折을 통한 悲觀的 世界觀

백호는 현실에 대해 그렇게 낙관적인 시선을 갖지 못했다. 백호가 비판적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현실세계 내에서 기대했던 자기실현의 기회가 근원적으로 봉쇄되었던 상황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백호가 초년에 지냈던 기개와 포부는 그의 문집에 산견되는 기록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澤堂 李植은 ‘삼척검 찬 임량은/보기도 문 영웅일세/손오의 방법을 통했고/시구는 기묘함을 얻었도다…(林郎三尺劍 詭然希世雄 向來孫吳法 得妙詩句中…)’¹⁵⁾라고 했으니 그 才品과 氣

質이 특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12대 係 鍾弼은 문집 발문에서 ‘선생의 천성은 분방하여 기질이 우뚝하고 매이기 싫어했다. 어려서 의협심이 있고 더욱 병법을 좋아했다’¹⁶⁾고 하였다. 그 스스로도 ‘평생 한자루의 칼로 남아의 기개는 원대했네(平生一丈劍 男子遠遊情)’¹⁷⁾ 라고 읊어 평생에 품었던 뜻이 범상치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포부는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그가 후년에 이르러서는 더욱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음은 역시 탁당이 위 시에서 ‘애석하도다 호남의 기개 꺾기어 외로운 쑥대갈구나(惜吳湖南氣 摧落隨孤蓬)’¹⁸⁾라고 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 白沙 李恒福은 백호의 문집 서문에서 ‘넉넉하게 타고 났으나 조금밖에 드러내지 못한 사람은 나의 벗 임군자로다’¹⁹⁾ 라고 하고는, 그의 생전을 상고하여 ‘때로 香奩과 酒肆에서 어지러히 놀며 기꺼워 하였으며 혹은 슬픈 노래로 강개하였으나 사람들은 그 이유를 헤아리지 못하였다’²⁰⁾고 하여 백호가 평소 자신의 懷才不遇에 얼마나 비탄해 하고 慷慨했는가를 잘 밝혀 주고 있다. 그러한 심리적 좌절감은 그의 다음 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千里宦遊何事業	천리 밖 벼슬길에 무엇을 이루었나
數篇詩語當勳名	몇 편 시구가 공훈을 대신하네
自憐破匣餘孤劍	애답다, 갑 속의 외로운 칼이어
紫氣干星夜夜明	자색 기운이 별을 범하며 밤마다 빛나도다 ²¹⁾

15) 李植, 《澤堂續集》卷之一, 〈白湖林公傍〉

16) 先生以天縱之姿 卓犖不羈 少好俠 尤喜兵法

17) 《白湖集》卷一, 〈次巡撫韻〉

18) 《澤堂續集》卷之一, 〈白湖林公傍〉

19) 能厚賦而薄發者 吾友林君子順而已

20) 時於香奩酒肆 漫浪以自適 或悲歌慷慨 人莫測其端

21) 《白湖集》卷三, 〈鏡城長句用朱村韻〉

변방의 小官으로 전전하면서 詩作으로 자위했던 정상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갑 속의 칼이라 했으니 자신의 쓰이지 못하고 감추인 재기를 말하는 것이겠고, 그 애끓는 심정을 마지막 구로 표현해 내었다.

역시 〈遺興〉으로 제한 시에서도 ‘남쪽 장수의 칼에 먼지가 일고/병서를 읽은지 30년이라’²²⁾라고 하여 그 일단을 엿보인다.

백호가 이처럼 좌절감을 느낀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쟁이 분분했던 당대의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입신의 가치를 찾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賢과 邪가 뒤섞였으니 / 세상이 다시 堯舜시절 되겠는가’²³⁾ 한 데에서처럼 현실의 정치관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파악한 것이 백호의 시각이었다. 그의 墓文에는 ‘문사로 이미 세상에 이름이 날로 높아갔는데, 이 때 東西分黨의 물의가 일어나 선비들은 명예로 다투어 서로 헐뜯고 끌어당기고 하였다. 공은 분방하여 초연한 태도로, 굽혀서 남을 섬기기를 좋아하지 않은 때문에 벼슬이 현달하지 못했다’고 하여 백호가 좌절을 겪게 된 이유가 역시 정치적 부조리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백호의 현실과 관련한 자기 삶에 대한 시각은 ‘立志와 挫折’이라는 일련의 심리적 태도로 정리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그의 내면 정신세계의 추향은 바로 본 작품의 둘째 단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단락은, 의미상의 인과관계로 보면 앞 단락과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미 주인공의 간언으로 천군이 숨을 내려 중화의 통치를 시행하려고 한 상황에서 갑자기 혼란이 발생하도록 한 설정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그러나 역시 여기서 백호는 그러나 작품의 논리적 구성과는 별도로 그가 겪는 세계 내에서의 모순의 실상을 보다 심각하고 철저하게 개진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단락의 서술량이 논리적인

22) 《白湖集》, 〈遺興〉, ‘南邊壯士劍生塵 手閱陰符三十春’

23) 《白湖集》卷1, 〈悼灌園〉, ‘賢邪一潛沌 天地再虞唐’

맥락에서 볼 때 전체적인 균형을 상실하고 있지마는, 그 사실은 본 단락의 의미상의 개별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선 이 단락의 전반적 분위기를 짐작케 해 주는 것은 七情 가운데 哀公이라는 자가 감찰관, 채청관과 함께 올리는 소장이 내용이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玉宇가 寂寂하고 멀며 金風은 쓸쓸하고 차가와서 서늘한 기운이 우물가의 오동나무에서 생기고, 이슬이 대나무 숲에 떨어지며, 귀뚜라미는 울고, 풀은 쇠락하여 시들고, 기러기는 울부짖는데, 구름은 차가와 지고, 잎이 떨어지니 소리가 나고, 부채는 버려진 채 恩情은 없어지고, 潘岳의 귀밑은 희어지고, 宋玉의 愁心이 일어나 바로 이 長安에 조각달이 萬戶의 다듬이 소리를 재촉하고, 玉關의 외로운 꿈에 아내의 치마 허리띠가 줄었고, 溇陽의 단풍잎과 가을 꽃에 司馬의 푸른 적삼을 다 적시고, 巫山 국화떨기의 조각배에 杜工部의 흰 머리털도 끊어서 짧아졌습니다.

하물며, 밤비가 長門宮에 치우쳐 내리고, 서릿발 내리는 달밤, 외로운 베갯 머리는 다만 燕子樓에 홀로 남게 되었고, 楚나라 蘭草의 향기는 다 하고, 푸른 단풍나무도 瑟瑟한데, 湘妃의 눈물이 말라 斑竹이 적막하였습니다.

(伏以 玉宇寥廓 金風淒冷 涼生井梧 露滴叢篁 蛩吟而草衰 雁叫而雲寒 葉落而有聲 扇棄而無恩 華潘岳之鬢 擿宋玉之愁 正是長安片月 催萬戶之砧聲 玉關孤夢 減一圍之裳腰 溇陽楓葉荻花 濕盡司馬之青衫 巫山叢菊扁舟 搔短工部之白髮 況夜雨偏入長門宮 孤枕霜月 只爲燕子樓一人 楚蘭香盡 青楓瑟瑟 湘妃淚乾 斑竹蕭蕭)

때는 復初 元年 秋八月이라 하였다. 가을의 소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설정하면서 옛 인물들의 정상을 나열하여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예시하고 있다. 감찰관과 채청관이 疏를 올렸다는 사실은 五官의 작용으로 인식되는 외부의 현실문제를 끌어오기 위한 설정이다. 그 현실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임을 나타내기 위해 특히 칠정 중 哀를 등장시켰다.

‘입지와 좌절’이라는 자기자신의 삶의 궤적을 이 단락에 투사시키고자 한 의도는 愁城을 구축토록 천군에게 요구하는 두 인물 즉, 屈原과 宋玉을 등장시키 데에서 드러난다.

그 앞에 오는 사람은 顏色이 憔悴하고 形容이 枯槁하여 切雲冠을 썼는데, 허리에는 긴 칼을 차고 연잎의 옷옷을 입고, 후추와 蘭草의 패물을 달고, 눈썹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愁心을 띠고, 눈에는 임금을 생각하는 눈물이 가득하니, 곧 懷王을 통탄하고 上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닌가!

뒤따라 오는 사람은 神色이 秋水처럼 맑고, 얼굴은 冠玉같고 楚나라 의복에 초나라의 갓을 쓰고, 초나라의 말씨로 초나라의 노래를 하니, 이는 한 평생 오직 楚襄王만을 섬겼던 사람이 아닌가!

(那先行的人 顏色憔悴 形容枯槁 冠切雲 帶長劍 支荷衣椒蘭佩 眉攢憂國之愁 眼滿思君之淚 無乃痛懷王而恨上官者耶 尾來的人 神凝秋水 面如冠玉 楚衣楚冠 楚聲楚吟 莫是一生唯事楚襄王者耶)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뜻을 펴지 못하고 결국은 조정에서 방축된 두 인물은 곧 입지와 좌절의 일생을 겪어왔던 백호의 자기 삶을 허구적으로 성격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백호의 이러한 자기인식은 이 단락의 말미에 있는 서술자의 개입으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수성민에 대한 기술을 마치고 나오는 管城子를 한 사람이 붙들고 ‘나는 곧 당대의 인걸로서 시한 수가 있으니, 그대에게 쓰도록 하는 번거로움을 끼치려 한다’ 하고는 높은 소리로 크게 읊었다고 하였다.²⁴⁾

若人足稱奇男子 이런 사람이야말로 기남자라고 일컬을만 해
十五年前通六韜 15세 전에 육도를 통했도다

24) 一人執管城子曰 子何追古而遺今 點鬼簿而蔑陽人也 我乃當世之人豪 有詩一章 頌君寫之 乃高聲浪吟

塵生古匣刀未試	묵은 칼집에 티끌만 앉았으니 칼은 시험도 못했고
日極關河秋氣高	산하에 눈 가는 끝까지 가을 기운만 높아졌네
中年好讀孔氏書	중년엔 공자의 글 읽기를 좋아해
向來所恥非繹袍	적때부터 부끄러워 하는 바는 온포가 아니었건마는
牛歌不入齊王耳	소를 먹이는 노래가 제왕의 귀에 들어가지 않아
鬢上光陰昏又朝	수염 위에 세월은 흘러 어둡고 밝곤 하여 흘러가도다

이미 소시 때부터 六韜를 통하여 후일 재상의 반열에 올라 천하를 경륜하고자 했지마는 이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결국 갑속의 녹슬은 칼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천군의 명으로 관성자에 의하여 기술되는 忠義門, 壯烈門, 無辜門, 別離門의 수성문 안의 역사적 인물들도 입지와 좌절이라는 백호의 자기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인물의 나열임을 깨닫게 된다.

雍齒도 제후에 봉해졌고, 曹丕도 황제로 일컬어졌으며 마땅히 義士의 분함과 영웅의 한이야 다시 어떠하겠으며, 鴻門의 잔치가 끝나매 玉斗가 눈처럼 부서져서 충성된 義憤이 激烈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두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자는 范亞父였고, 赤兔馬를 타고 靑龍刀를 쥐고 푸른 戰袍에 긴 수염으로 으시되던 우람한 풍채도 한 번 阿蒙의 손에 함몰되매, 江東을 마구 얻어 삼키지 못하였음을 한탄한 것은 關雲長이었고, 길게 휘파람을 불던 越石과 돛대를 치던 士雅는 뜻을 품은 채로 죽었으니, 천지도 무정하더라. 그 뒤에 張巡·許遠·雷萬春·南霽雲 등 사람마다 忠壯하였으니, 각기 정의의 마음이 열렬하더라

(雍齒封侯 曹丕稱帝 義士之憤 英雄之恨 當復如何 鴻門宴罷 玉斗如雪 忠憤激烈 至死不二者 范亞父也 騎赤兔馬 提靑龍刀 綠袍長鬚 矯矯雄風 一陷阿蒙之手 恨不得平吞江東者關雲長也 長嘯越石 擊楫士雅 齎志而逝 天地無情 其後有張巡 許遠 雷萬春 南霽雲 人人忠壯 箇箇義烈)

西楚霸王은 烏騶馬 한 필로서 천하에 橫行하다가 8년 전쟁의 꿈이 烏江

물결에 끊어졌고, 淮陰의 남자는 옷을 풀어 준 은혜에 감동되어 백만의 무리를 이끌고서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고 하다가 높이 나는 새가 다 없어지자 활이 감춰져서 마침내 兒女의 손에 죽으니, 可惜하다!

(西楚霸王以鳥一騎 橫行天下 八年干戈夢 斷烏江之波 淮陰男子 感解衣之恩 連百萬之衆 戰勝攻取 烏盡弓藏 竟死兒女之手 可惜)

하물며, 탁한 물을 쳐 내고 맑은 물을 올려서 많은 선비가 濟濟跼跼 하게 됨이 시대에 어찌 해로와서 廢하여 죽는 자리에 두었던가? 원통하다! 范孟博 등의 모든 사람이여! 또 李敬業·駱賓王은 하늘에 통하는 의리와 古수를 깨우는 충성이 있어서, 忠憤으로써 몸도 돌보지 않고 옛 임금의 復位를 피하려 다가 일이 그릇되어 몸을 버렸으니, 귀신이여!

(況激濁揚清 多士濟濟 何害於時 而置於廢死 冤哉范孟博諸人 且李敬業駱賓王 憤不顧身 謀復故主 通天之義 貫古之忠 而事誤捐軀 神乎鬼乎)

그런데 여기서 깊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별리문>으로 기술된 내용이다. 그 내용은 대개 天子의 寵妃나 愛妾이 처음의 사랑을 이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백호의 낭만적 정신의 단순한 반영이라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행적 역시 처음의 총애와 뒤의 버림으로 이루어져 입지와 좌절이라는 백호의 개인적 삶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재를 자신의 삶에 의탁하고자 한 것은 이미 그의 豐淸詩에서 두루 이용된 문학적 기교이다.

晴空楊柳花	맑은 하늘에 버들꽃
豈有凌雲翻	어찌 구름 위로 오를손가
抵緣質以輕	단지 본성이 가벼운고로
上下因風力	바람타고 위, 아래로 날아 다니네
撲撲繡簾旌	수놓은 주렴에도 부딪히고

依依歌舞席	잔치마당에도 내려 앉네
長信翠娥人	장신궁의 미인이
見之增歎息	그것을 보고 더욱 탄식하도다
安得如此花	어찌 이 같은 꽃이 되어
一近君王側	한 번 임금 곁에 가까이 갈꼬
沈憂不覺暝	깊은 시름에 어두운 줄 모르다가
風雨深宮夕	비바람 속 깊은 궁이 저무네
清晨倚曲欄	맑은 새벽 굽은 난간에 의지하니
滿地楊花白	땅 가득히 버들꽃이 희도다
昨見咨飛揚	어제 어지러히 나는 걸 보았는데
何意塵沙裡	어찌 먼지 속에 있는 것을 뜻하였겠는가?
莫如雲間鶴	구름 속 고니가 되어
飛飛日千里	하루 천 리를 날아감만 못하도다

長信宮의 미인과 바람에 날리는 버들꽃을 절묘하게 대응시켰다. 미인도 한 때는 막 피어 오른 버들꽃과 같이 천자의 총애를 받아 심궁을 無時로 드나들면서 호사를 뽐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버림받아 별궁에 독거하면서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양이, 봄바람이 잦아 든 후 땅 위에 부질없이 밟히는 버들꽃과 같은 신세 같다는 이야기이다.

위의 내용은 물론 우의적 표현이다. 정치적 영달을 꿈꾸며 仕路에 올랐던 才士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어 실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마지막 두 구는 시적 화자로 작가자신과 동일시된다. 즉 그러한 정치판에 아예 뜻을 두지 않고 방외에서 자족하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백호의 염정시는 많은 경우 정치에 관련된 현실의 문제를 우의하여 백호 자신이 지닌 세계관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별리문〉에 수용된 艶情故事들도 백호의 그러한 문제의식이 문학적 수사로 위장되어 반영되고 있다고 볼 때, 앞의 〈총의문〉 등과 동례의 의미체계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입지와 좌절이라는 의미구조가 백호 개인의 삶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왕조의 개국 이후 그의 당대에까지 이어져 왔던 정치적 굴절과정에까지 문제의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왕도정치를 표방하였던 신유학의 정치이데올로기가 세조의 왕의찬탈 등과 같은 부조리한 사건 등으로 왜곡된 실상이 은근하면서도 적실 하게 드러난다. 그 단적인 예를 다음에서 볼 수 있다.

이 중에도, 가장 恨스럽기는 古今이 같고, 憤하기는 이승과 저승 간에도 절실하여 고통스럽고도 괴로우며 슬프고도 애통하여 차마 말하지 못할 것은 齊王이 松栢 속에서 客이 되어 죽었던 일과, 楚나라 황제가 江中에서 죽었던 일이었으니, 나라를 빼앗는 것은 모르지만, 차마 죽이는 것을 어찌 할 수 있었는가? 忠臣의 눈물은 그칠 수 없었고, 烈士의 원한도 지나칠만 하도다.

(此中最有恨 同古今 憤切幽明 苦苦哀哀 不忍言 不忍言者 齊王客於松栢 楚帝死於江中 移國亦足 置死那忍 忠臣之淚不盡 烈士之恨有既)

위의 내용은 尹柱弼教授가 말한 바처럼 같은 유형의 옛 사적을 통하여 말하기 곤란한 당대의 일을 과감히 지적하는 우의적 수사법으로 단종에 관한 일을 時諱를 피할 수 있는 정도로 표현한 것이다.²⁵⁾ 그러나 여기에 '同古今'이 아니라, '憤切幽明'이니 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백호는 이런 왕도정치의 이상이 무너진 현실을 '입지와 좌절'이라는 개인적 삶과 같은 맥락 속에 놓음으로써, 그의 현실적 비관주의가 一身의 命運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고 있지 않음을 이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自高精神과 代案의 摸索

魏襄將軍의 愁城 공략이 중심이 되는 세 채단락은 事物假傳의 갈래상 특징

25) 尹柱弼, 위의 책, p. 76

을 망라하고 있다. 사실 이 단락은 의미상 체계로 보면 간단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앞 단락에서 경험적 진실로 확인된 비극적인 역사현실을 슬로써 망각한다는 것이다. 결론을 그런 정도로 이끌 것 같았으면 구구히 사물가전적 필법을 빌어올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이 단락은 작품의 논리적인 맥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단락의 성격에 대해 鄭學城教授와 尹柱弼教授는 작가의 방외적 세계관이 희필적 기교를 통한 희학적 우의로 나타 나고 있다고 하였다.²⁶⁾ 가전이 갈래적 특징으로 지니는 修辭的 성격에 작가의 세계관에 관련된 문제를 대응시켰다고 본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수사적 측면만이 아니라 형상화된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까지 작가의 시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읽어내어야 할 것 같다.

이 단락에서의 서술의 주체는 국양장군이다. 천군은 국양장군을 초치할 때 잠깐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진다. 즉 이 단락에서는 국양장군이 작가 백호의 세계관적 인격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국양장군을 비롯한 이 단락의 등장인물을 이해하는 데는, 가전의 갈래상 전통 속에서 관행화된 인물상과 백호의 인격적 투사로 형상화된 인물상의 이중성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양장군의 성격은 주로 高麗 假傳에서부터 관행화되어 기술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백호의 인격적 호흡을 용이하게 분석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작가가 술에 대한 가전적 필법을 빌어 온 것은 그의 특별한 作意를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 가전의 인물 속에서 확인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 양식이 그렇듯이, 가전 역시 입전대상 인물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가전은 입전된 사물이나 동물 등의 특별하고 개별적인 성격을 인간세계의 여러 속성에 비의해서 그려내게 된다. 따라서 가전의 인물들에 형상화된 그러한 개별적인 속성들은 작가의 개성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상

26) 鄭學城 林白湖文學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5. p. 85~89

尹柱弼, 〈愁城誌〉의 삼단구성과 그 의미, 《韓國漢文學研究》, 韓國漢文學硏會, 1990 p. 72~73

당히 유용하고 적절하게 이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²⁷⁾

우선 국양의 성격을 묘사한 부분을 보자. 국양은 杏花村에 거하는 은자로 성현의 이름을 얻었고 맹렬한 기운을 겸해서 왕왕한 천 이랑의 물결과 같아서 가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라고 하였다.²⁸⁾ 이어 곡식을 먹지 않고 정기를 단련하여 瓶 가운데 해와 달을 지녀서 난을 다스려 성인을 기다린 인물이라고 하였다.²⁹⁾ 그리고 반평생 행하고 간직했던 처세법은 오직 유리의 잔과 앵무의 잔이었고, 백년의 교제는 단지 習家の 못과 高陽의 무리였다고 하였다.³⁰⁾

국양의 성격을 묘사한 위의 내용들은 사실 고려 가전의 내용과 相似하다. 〈麴醇傳〉에서는 醇에 대해 ‘도량이 넓고 커서 마치 끝없는 萬頃의 바다 물결과도 같았다. 억지로 맑게 하려고 해도 더 맑아지지도 않고, 일부터 휘저어도 더 흐려지지도 않았다. 그 풍미는 한 세상을 뒤덮어 자못 그 기운을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했다.’³¹⁾고 하고 있다. 역시 〈麴先生傳〉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 아이의 마음과 도량이 몹시 크고 넓어서 출렁거리고 넘실거리며 마치 만경의 물결과 같소’³²⁾ 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려가전이 비교적 술에 관련된 故事와 술의 물질적 속성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국양의 성격묘사에서는 고려 가전의 수사상 관행을 수용하면서도 특별히 백호자신의 개성적인 인격을 투사하려고 한 의도가 역력함을 볼 수 있다. 즉, 기존갈래의 관행화된 수사를 교묘히 엮으면서도 여기에 백호 자신의 은둔자적하면서도 호기와 강직을 지켜온 奇男兒의 모습을 적절하고도 충실히 그려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道家의 표일에 몸을 맡기고

27) 가전의 인물을 작가자신과 동일시하여 성격화한 구체적인 실례로써 權權의 〈郭索傳〉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金昌龍, 郭索傳研究, 《東方學志》37-38합번호, 1983; 文範斗, 石洲權 韓文學의 研究, 嶺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3 참조

28) 聞杏花村邊 有一將軍 得聖賢之名 兼猛烈之氣 汪汪若千頃波 未可量也

29) 辟穀鍊精 長保壺中之日月 治亂待聖 遂有窮命之沾濡

30) 半世行藏 唯是琉璃瓊觀 百歲交契 只有習家池高陽徒

31) 醇器度弘深汪汪 若萬頃波水 澄之不清 搖之不濁 其風味傾於一時 頗以氣加人

32) 此兒心器當汪汪 若萬頃之波

음주자약하며 匣 속의 칼을 매만지며 기재를 숨겨온 그의 모습이다.

그는 미관으로 변방을 전전했으나 천자의 나라에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할 정도의 호협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³³⁾ 자기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胡地를 포괄하고 南倭를 驅逐하는 일대 대장군의 호협을 떨칠 기개와 능력을 자부했던 터였다. 그러한 자기실현의 욕구가 천군의 초치로 喉舌의 職을 맡아 출전하는 모습 속에서 허구적으로 반영된다. 특히 孔方으로 하여금 그를 간곡히 초치하도록 한 설정도, 역사상 초야에 묻혔던 은 일재사들이 천자의 돌아봄을 입고 재상으로 장수로 천하를 횡행했던 모습을 상정하였을 것이다.

다음은 그의 호기가 작품에서 극적으로 방출되는 부분이다.

돌아보건대, 이처럼 미천한 선비가 큰 벼슬을 어찌 감당하리오. 이는 대개 賢人을 쓰는 법이 당적할 데가 없고, 愁心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었던 임금을 만나 신에게도 때로는 한 번 맞출 수 있어서, 쓰기에 의심하지 않을 만한 것을 許與하시었고, 신을 못입들이 부르는 것은 홀로 마음이 단정했다고 이르시어, 드디어 박한 재주에 명하여 바다와 같은 量을 받아들이게 하였으니, 감히 맑고도 맹렬한 기운을 한층 더해서, 꽃다운 향기를 더욱 퍼뜨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술잔으로써 兵權을 놓게 하였음이 비록 趙普의 계책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슴 속에 수 萬의 兵甲을 간직하여서 范仲淹의 威風을 본받으려고 하옵니다.

(願此狂生 何堪太爵 茲蓋伏遇用賢無敵 攻愁有方 許臣時一中之不疑於用 謂臣招衆口 爾獨斷於心 遂令薄才 得容海量 敢不勉曾清烈益 播芳芬 杯酒釋兵權 縱不及趙普之策 胸中藏萬甲 庶可效仲淹之威)

33) 洪萬宗, 〈旬五志〉, '林白湖疾甚將死 子弟泣下, 白湖止之曰 四夷八蠻無不稱帝 五代皇帝其數無窮 而我國獨不得稱帝 生於如此之國 不若死之爲達'

마지막으로 네째 단락은 백호가 지냈던 處世觀의 일단을 밝혀주는 대목이다.

이 부분은 처음에 이르고자 했던 중화의 경지가 愁心에 의해 방해되자 슬기운을 빌어 수심을 밀어내고 다시 처음의 경지로 회복하는 상황이다.

즉 이 단락으로 해서 본 작품의 전 구성이 심성가전체의 일반적 구성방식인 태평-혼란-회복의 서사공식에 충족된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수성 공략 후의 안정된 상황은 둘째 단락에서 겪었던 혼란의 극복하고 처음 도달하려고 했던 중화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天君이 靈臺에 올라서서 바라보니 구름은 사라지고 안개는 걷히고, 자헤로운 바람과 나른한 햇빛에 접때 슬펐던 것이 기쁘게 되고, 괴로왔던 것이 즐겁게 되고, 원망스럽던 것은 잊혀지고, 恨스럽던 것은 사라지고, 憤한 것은 빠져 나가고, 성났던 것은 기쁘게 되고, 근심하던 것은 즐거워지고, 답답하던 것은 후련해지고, 呻吟하던 것은 노래부르고, 주먹 쥐었던 것은 춤 추며 뛰고, 伯倫은 그 德을 칭송하고, 嗣宗이 그 가슴을 씻고, 陶淵明은 갈건과 素琴으로써 들의 나무가지를 바라보매 기쁜 얼굴이 되고, 李太白은 接羅와 金袍를 입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달에 취했다. 玉山이 장차 무너지려는데, 때는 이미 촛불을 잡고 놀았으며, 꽃은 눈 앞에서 휘날리고 달은 장막 속으로 들어오도다.

(天君登靈臺 望見 雲消霧卷 惠風遲日 向之悲者歡 苦者樂 怨者忘 恨者消 憤者洩 怒者喜 惘惘者怡怡 鬱鬱者忻忻 呻吟者謳歌 扼腕者蹈舞 伯倫頌其德 嗣宗澆其胸 淵明葛巾素琴 眄庭柯而怡顏 太白接羅錦袍 飛羽觴而醉月 玉山將頹 時已秉燭 花飛眼前 月入帳中)

위는 그렇게 해서 도달하게 된 평정상태이다.

그러나 작가의 시각은 그러한 작품자체의 논리적 구조와는 다르다. 술로 인해서 중화의 경지에 이를 수도 없거니와, 일시적 망각의 상태가 엄연히 존재하는 古수의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본 단락

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부조리한 현실의 인식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택하게 되는 작가의 처세관이다.

滄浪叟	창랑수의 노인이며
滄浪歌	창랑의 노래 부르도다
一江烟月一竿竹	이내 낀 강가에서 낚시 드리우며
寒沙獨伴旅雁眠	강가에서 홀로 기러기와 짝하며 졸도다
蘆葦蕭蕭夜霜白	갈대풀은 우거져 밤서리가 희고
清晨入市販魚廻	새벽에 장에 나가 생선사서 오고
酒樓買醉江天夕	주루에서 술마시며 저녁 강하늘 즐기도다
我不願高車駟馬	내 높은 벼슬 원치 않으니
夢南垞	남가를 꿈꾸며
隨爾共和滄浪曲	너와 함께 창랑곡을 부르리라 ³⁴⁾

백호의 이와 같은 정신적 유희의식은 단순히 醉中の 陶樂과 高踏的 隱逸에 희희낙낙하는 자족적 처세관의 표현이 아니다. 관성자에 의해서 기술된 수성민들의 모습은 현실 자체의 부조리가 이미 교정될 수 없을 만큼 뿌리 깊고 구조적이며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험적 사례들이다. 그렇다면 애초 중화의 세계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당연히 새로운 가치의 세계를 추구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가 방외에 노닐며 은일의 한적을 구가한 것은 실상은 현실적 부조리를 개선할 수 없다는 체념에서 그 세계관적 대안으로 모색한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글과 칼 쓰일 곳 없으니 이 생애의 결국을 漁樵에 부치리라’³⁵⁾고 한 것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34) 《白湖集》卷之三, 〈滄浪曲〉

35) 《白湖集》卷三, 〈自述〉 ‘書劒十年無用處 此生端合寄漁樵’

6. 맺음말

이상에서 〈수성지〉에 나타난 백호의 작가의식을 다각도로 조명해 보았다. 현실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보였던 것은 유가로서의 본성적 판단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철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 첫째 단락이다. 둘째 단락은 자신의 삶을 입지와 좌절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역사적 인물의 행적에 우의해서 그려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심적 추향이 결코 개인의 문제에 국한 것이 아니라, 왕조의 개국 이후 오도되어 왔던 정치현실에 대한 인식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세째 단락에서는 한때 지녔던 經世之志를 서사주체에 투사함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한 꿈을 허구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네째 단락은 자신의 은일적이며 고답적인 처세를 역시 뚜렷한 현실인식의 결과임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이 독선적 유희에 매몰된 행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본 작품은 백호가 현실 속에서 고뇌하면서 살아왔던 자기일생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지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작품의 성격은 이처럼 전체적인 의미구조와 함께 개별단락에 반영된 작가의식을 적의하게 추론해 냄으로써 보다 명확히 파악될 수 있었다고 믿는다.